

Dubai유, 45달러선 턱걸이

4월14일 Dubai 0.80달러 하락 45.09달러 ... WTI는 상승

국제유가가 매도 포지션 청산을 위한 반발 매수세와 정제유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부족 우려에 따라 WTI는 상승했으나 Dubai유와 Brent유는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14일 현지에서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배럴당 0.50달러 상승한 50.94달러, 북해산 Brent유는 0.07달러 하락한 48.81달러를 기록했다.

중동산 두바이(Dubai)유는 배럴당 0.80달러 내린 45.0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5월물 선물가격은 배럴당 51.13달러로 0.91달러 상승했으며, 런던 국제석유 거래소(IPE)의 Brent유는 배럴당 0.43달러 오른 50.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 변화

(단위: 달러/bbl)

구	분	4/11	4/12	4/13	4/14
현 물	Dubai	46.92	48.06	45.89	45.09
	Brent	50.94	50.52	48.88	48.81
	WTI	54.07	51.62	50.44	50.94
	Oman	48.16	49.24	47.18	46.27
	Tapis	57.47	58.65	56.74	55.66
NYMEX 선물(WTI)	5월	53.71	51.86	50.22	51.13
	6월	55.10	53.53	52.13	52.78
환율(원/달러)		1023.30	1022.30	1021.20	1026.30

+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 기준

한편, OPEC 회원국 중 나이지리아, 알제리, 베네주엘라 등이 원유 생산량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주목되고 있다.

IEA는 2005년 중국의 석유 수요 증가추세가 2004년 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화학저널 2005/04/15>